

# 3개 시·군 문화 공유 화합의 장 진안사과 '홍로' 본격 출하

### 무주반딧불축제 맞아 무주·김천·영동 문화원 관계자들 무주 방문

무주군이 국내 최대 환경축제인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맞아 29일 3개 시·군 문화교류를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문화원과 김천문화원, 영동문화원 3개 시·군 문화원장과 문화원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문화교류 화합행사를 가졌다.

(사)무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3개 시·군 문화행사는 기념식과 문화공연, 축제장 및 머무와인동굴과 반디랜드 등 무주군 주요 문화시설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백승원 영동문화원장 개회선언에 이어 이기양 김천문화원장의 3도 협약서 낭독, 맹갑상 무주문화원장의 개회사, 그리고 황인홍 군수 환영사가 이어졌다.



국내 최대 환경축제인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맞아 29일 무주문화원과 김천문화원, 영동문화원 3개 시·군 문화원장과 문화원 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문화교류 화합행사를 가졌다.

이어 3개 시군의 문화교류행사가 마련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가 제공됐으며, 지역 문화 공유를 통한 문화예술 교류의 지속추진과 활성화하는 데 서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기양 김천문화원장은 삼도봉 대화합 협약서 낭독을 통해 "인접 시군은 지역간 교류를 통해 시·군민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서로 발전을 추구하는 모든 시책을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이날 3개 시·군 문화원 관계자들은 3년만에 전 국민의 관심속에 진행되는 반딧불 축제장을 둘러보고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생태·환경·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축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황인홍 군수는 "삼도봉을 기점으로 인접한 3개 시·군 문화원의 문화예술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역 간 화합과 우애의 장을 만들고 있어 뿌듯하다"며 "26회 반딧불축제가 치러지는 만큼 성

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맹갑상 무주문화원장은 "사회적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오늘 무주에서 문화가족 여러분에 숨은 끼와 열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즐거운 문화교류 화합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문화가 꽃피는 자랑스러운 사과의 고장 무주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밤하늘 수놓은 별자리 찾기 '반디별 소풍' 인기

### 무주반딧불축제 천체관측 신비 탐험·교육 프로그램 진행

무주군과 무주반딧불축제제정위원회가 마련한 꿈을 찾는 '반디별 소풍' 프로그램이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반딧불축제 가운데 천체관측 신비 탐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대표 축제로 꼽히는 '반디별 소풍'은 천체관측 일원으로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관람장 등에서 전문 강사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나만의 별자리를 찾는 천체 관측의 기

회였다.

축제 첫날인 지난 27일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 소이나루공원에서 희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여름밤을 훈훈하게 달궜다. 이날 '반디별 소풍' 프로그램에 참여한 체험객들은 천문망원경으로 밤하늘에 수놓인 별자리를 직접 관찰하면서 밤하늘과 별의 신비함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문강사가 참여자들에게 별자리와 천체의 비밀에 대해 알기쉽게 소개했다. 그리고 반디별 사연을 담은 엽서쓰기와 잔잔한 음악과 함께 가족 및 사랑을 나누는 사연을 읽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참여자들은 '반디별 소풍' 추억을 간직하느라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했다. 한편, 다음달 3일 같은 장소에서 또 한 차례 꿈을 찾는 '반디별 소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홍로사과 150여톤·후지사과 10월 중순부터 450여톤 예상

진안고원 가을 농산물의 대표품목인 진안사과 '홍로'가 가을 추수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을 통해 본격 출하된다.

진안고원 사과는 준 고랭지의 특성이 큰 일교차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며, 저장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거기에 현대화된 재배기술이 접목되어, 당도가 높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 또한 우수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조공법인을 통해 출하되는 사과는 1.5kg 비닐봉지 소포장에서부터 10kg 박스 포장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포장돼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농협하나로마트, 지역 소매시장, 도매시장, 진안고원물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번에 출하되는 '홍로' 사과는 진안, 백운, 부귀농협의 약 45여 농가에서



150여 톤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10월 중순부터 수확에 들어가는 '후지' 사과를 포함하면 진안 조공법인에서 출하하는 양은 600여 톤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춘성 군수는 "큰 일교차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최적의 청정환경에서 재배한 진안고원 사과는 맛뿐만 아니라 품질과 당도 면에 있어서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진안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연말까지 사용하세요"

장수군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연말까지 사용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9일 장수군에 따르면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향상 및 문화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

이에 장수군은 올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문화시설 등이 열악한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적 여성 농업인들이 건강관리, 문화생활 및 학습할

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15만 원(자부담 2만원 포함)이 지원되며, 음식점, 마트, 화장품, 스포츠용품, 영화관, 서점 등 사용 업종에 한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장수군에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받은 여성농업인은 2,426명이다.

차주령 농업정책과장은 "생생카드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문화,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 '메가쇼' 참가 신제품 홍보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세텍 박람회장에서 열린 '2022 메가쇼'에 참가해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 특구 진안군을 대표하는 홍삼 제품과 진안홍삼축제 알리기에 나섰다.

'메가쇼'는 '수도권 600만 주부들의 핫플레이스'라는 슬로건으로 생활, 음식, 주방용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소비재 박람회로 모두 250개사가 참여해 400부스가 운영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사업단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신제품인 '프리미엄 홍삼정'을 포함해 22종의 다양한 진안 관내 우수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진안군수품질인증 제품인 '프리미엄 홍삼정'은 직접 시음 이벤트를 열어 고객들에게 진안홍삼의 진한 맛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인 '진안홍삼축제' 홍보도 함께 진행하며 홍삼특구 진안군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